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一】 第六千四百四十五號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昭和十四年四月十八日(火曜日) (第六版) (日刊)

社說 米大統領의 平和親書

一

獨逸이 체코슬로바키아를 解體시키고 伊太利가 알바니아를 併合하고 西班牙가 防共協定에 加擔함에 따라서 最近歐洲의 覇權은 宛然 英佛로부터 獨伊로 넘어간 느낌을주는 同時에 거기對한 英佛兩國의 焦燥도 좀더 甚하지 안할수업는것이라 終始 平和政策아래 伊太利와의協調와 獨逸의牽制를 힘써오던英國조차 波蘭과 互相援助條約을 맺은後 다시 한거름 내키어서는 蘇聯, 土耳其와도 그와비슷한 條約을 締結코자 交涉한다고 傳하야 最後의危機를 豫想키에 이르지 안햇다고 推測되는터로 第二次大戰의 防波堤와도가튼 任務를 自負하고 西班牙內亂이나 獨墺合併에도 오직 平和만을 架設해오던 英國이갑작이 對獨伊의 包圍戰線을 編成키에 汲汲하야 多年間 感情이조치못한 蘇聯과까지 握手를 不得已하게 되매 이제이르러서는 歐洲의 戰火口가 爆發될것도單純한 時間問題에 지나지 안는다고 보아서 無妨하다。

二

이와가튼 國際에 잇서서 米國의動向은 極히 注目을끄는바로 世界의 耳目이 米國에集中되어잇는것도 또한 가릴수업는 事實이엇다 그러데 元來 米國은恒常 平和의 外被속에 숨어서 眞心을 把握키도 어렵거니와 設使 極東에 잇서서는 蔣政權을 同情하야 巨額의 크레디트까지 提供하고 歐洲로 옴기어서는 反獨感情이 强하야 일즉이 루즈벨트大統領으로 하여금 그 國境이 佛蘭西에 노히어 잇다고 主唱케 하엿다고는 하더라도 一朝有事之秋에 當하야 반듯이 念頭의 英佛側으로 加擔하리라고 斷定하기에는 아직도 그 態度가 不明確하얏지 안타할까고 疑心한다。

三

그러한 米國으로서 지난 十四日 루즈벨트大統領은 突然獨伊兩國에 向하야 平和要請의 親書를 보내어 써 歐亞 三十一個國의 義務的不侵略保障을 提議하고 그러한 會議가 開催될時 米國의 參加를 示唆하야 一般 世間의 注目을 集中하고잇는바 그 動機에 對하여서도 前番 佛蘭西에 對한 軍用機輸出의 問題로 一部의 攻擊을 招致햇고 또 最近 루즈벨트大統領을 爲始해서 米國의 當局者들이 戰爭에 對한 關心을 자조 發表하므로써 好戰的 非難을받고잇는 까닭에 이러한 提議를가저 國內人心을 收拾하려는 工作인지 獨伊對英佛이 犬牙相持하야 서로 困難하게된 눈치를채고 機先을 制하야 自國의立場을 有利케 하고저 積極的으로 進出케된 것인지 아직 무어이라고 斷言키 어렵다。

四

左右間 米國의 이提議에 對하야 英佛은 이미 全幅의 支持를 表明한다고 하니까 獨伊의 攻勢에對하야 多少의 牽制를 이루리라고는 보지지만은 그提議의 內容을 이루는바의 義務的 不侵略保障이란 結局에잇서 國際聯盟의 再編成과 別로다를것이 업는 것이라 現狀에 滿足할수업는 獨伊로서는 現狀維持에 努力하는 英佛과달러서 그意圖조차 贊同키 어려운터로 設使 그러한 國際會議가 열린다고 할지라도 所期의 效果를 거두기를 保障할수는 업는일이라고 생각한다。

總動員法 全面的發動과 指導權確立이 緊要
板垣陸相의 車中時局談

【名古屋電話同盟】北九州와 大阪地方의軍隊、工廠、軍需工場을 視察한 板垣陸相은 十七日午前九時 大阪驛發「가모메」로 歸京의 길을 떠낫는데 車中에서 議會終了後 처음으로 當面의 諸問題에 對하야 如左한 重要談話를 發表하엿다

이번旅行에 軍隊、工廠、軍需工場의一部分을 보고 民間有力者로부터 地方實情을 들은 結果 地方의 眞摯한 態度와 底力充實을 實際로보고 미듬직하게 생각하게되엇다 이대로가면 長期建設도 念慮업다고 생각한다 (寫眞은 板垣陸相)

歐洲情勢

米國大統領이 獨伊에 멧세이지를 보낸다는데 아직 詳細한것은 모르겟다 歐洲情勢는 複雜險惡한 狀態이다 이는小國이 獨立하야 極히 不自然한 體制에 處하야 諸國家의均衡이 不合理하게된때문에 現在와가튼 不安定狀態에 빠지엇다 그러므로 獨伊兩國이 新秩序建設을 目標로 크게 努力하고잇는것은 敬服하여 마지안는다

重慶政府의內情

蔣介石은 攻勢로 轉한다고 소리를 노피하야 宣傳하고잇스나 事實은 아무것도아니다 支那軍의 策動은 蔣介石의命令에 억절수업시 하는것이나 戰意는 조금도업다 結局 彼等이 我軍에對하야 攻勢를 取하는것이 도리여 徹底的으로 潰滅되는結果가 될것은 事實이 證明하고잇다 頑固한態度를 持續하고 잇는것은 그背後에 支援하는者가 잇서 東洋의平和를 故意로 妨害하는 第三國이 잇기때문으로 彼等은 第三國의 支援을求할때까지 何等의 體信이엇다 第三國은 事態認識을 反省하여야한다

我國과第三國과의關係

蔣이 第三國의 援助업시 戰爭을 繼續할수업슴은 明明白白한 事實이다 我國은 勿論 第三國과의 國交를 破壞하려는것은아니나 擧國一致 非常한決心으로써 東亞新秩序建設에 當하고잇슬때에 이를 妨害하는者에 對하야 如何한 感情을 가지게될가 하는것은 賢明한 政治家는 充分히 알수잇는바이다 第一線에 잇는者는上司의 命令에服從하야 作戰上 多大한 不利, 不便을참고, 第三國人의 生命財産保護에 遺憾이업기를 期하야 第三國과의사이에 無益한 紛爭을 極力避하고 잇는데 아직도第三國의 對蔣援助의 具體的事實이 續續發見되므로 第一線部隊가 遺憾으로 여김은 事實이다

占據地域의治安問題

國民政府의 興亞院聯絡部가 成立되어 本格的建設의 第一步를 내어드디게되엇다 最近報告에는 北支中支의 治安은急速히回復되고잇서 北支의京漢 津浦沿線의 治安은 回復되어 平常대로回復될지 困難한問題라고 一般이생각하고잇던바 河北全部 山東大部는 村落에 이르기까지 匪賊을掃蕩할수업다하니 非常한好成績이다 그間 第一線將兵의功績과苦心이如干 多大한바가 아니다

揚子江開放問題

我占領地內의 建設工作은 進展하야 經濟的活動은 旺盛하여질것으로 생각된다 我占領地의 民衆利益의 開發은 有望하다 아모리든揚子江은 我作戰軍의 補給의 大動脈으로서唯一한것이다 이러한見地에서 이에支障을 增大함과가튼일이 잇서서는 안된다 이問題는 가장愼重히 硏究하여야한다 이는勿論我國獨自의 見解에서 決定할것인데 아직開放하기로決定되지는 안햇다

크레기、카兩大使會見問題

크레기, 카兩大使의 會見問題에 別로關心하지 안는다

物價問題

國家總動員體制强化、生産力擴充、輸出貿易振興、國民生活安定等으로보아 根本的、綜合的價格對策의 確立과 遂行은現下가장緊急한일이다 政府에서는 有力한 委員會를 設置하여對策을硏究하고잇는데 陸軍으로서도 議會閉會後直時 價格對策委員會를 設置하고 徹底的으로 本問題를 審議하고잇다 그리고 陸軍의 必要한指令을 發하고잇다 陸軍의第一目標는 價格引下로서 物品에따라서는 一律로 引下함은 至難하나 期於히 實行하려한다

銃後對策問題

戰死者 遺家族及傷病兵援護事業等은 極히重要한問題이므로 政府로서도 全力을 奉獻하야 各機關에서 實施하고 잇는데 陸軍으로서는 特히 重大關心을 가저 特別委員會를 設置하고 調査硏究에 努力하야 政府의施設과 아울러 遺憾이업기를 期할생각이다

企畫院改革問題

企畫院의 改革擴大問題는 內閣에서 그必要를느끼고 目下 그方策에 關하야 硏究中이다

貿易振興問題

貿易을振興하야 計畫性을賦與하기爲하야 어떠한形式으로든지 各個의事務를統合하야 一元化함이 必要하다 但省으로할지 院으로할지는 別問題다 要는運用에잇스므로 極히 實際的으로 實行할수잇도록하여야한다

總動員法의强化問題

時局은 漸次 總動員機構의 全面的强化를 要하므로 總動員法의逐次發動이 要求되고잇다 이는事變이 大戰爭으로 轉하엿스므로 全面的으로 發動하여야 할것이엇스나 只今부터라도 늣지안코 發動하여야한다 各省이各自의立場에서行하여서는 안되므로 總理大臣의 指導權을 確立함이 必要하다 이것이 抵觸되지안코 行할수잇다고생각한다

日滿支聯絡機關設置問題

日滿支의 生産力擴充、物資動員計畫等에 잇서서 聯絡機關을 設置함이 必要하다 對滿事務局、興亞院、企畫院의關係를如何히할가에 對하여는 陸軍에서는 目下 硏究中이다

支那中央政權問題

支那中央政權樹立은 一二個月로는 無妨하다 今後의支那情勢와占據地域의 治情、新興政權의 强化問題와關聯하야 생각하면 自然히具體化될것으로 생각한다

浙贛線東方要衝 東鄕進賢守備線崩壞

【南昌十七日發同盟】撫河北岸에서 待機中이던 市汊、屏寒、長灘渡過各部隊는 十七日午前黎明을 期하야 突然撫河渡河를 敢行 猛烈한 砲火를 무릅쓰고 疾風과가티 南岸要地甲渡村(南昌東南方七十里)에 上陸 殘敵을 急襲하야 激戰하게도 抵抗하는 敵第五師에 殲滅的打擊을 加하면서 芳溪湖北岸의 線에 進出한 我軍은 이 撫河戰에 一兵도 損치안코 數千名을 捕虜로 하엿다 그리고 撫河의 突破로 浙贛線東方要衝東鄕進賢의 守備線은 崩壞되엇다

蘇、土兩政府도 反獨伊戰線에參加乎

【巴里十七日發同盟】佛國政府는 루즈벨트大統領의 멧세이지에 對한 獨伊의 反響如何를 多大한關心을 가지고 보고잇는데 英佛兩國政府는 이사이에도 蘇聯及 土耳其兩國의 反獨伊戰線引入工作을 急히하고잇서 兩國의 反獨伊包圍作戰參加는 머지안하야 實現될것으로 豫想되게되엇다 卽 봉네外相은 十六日午後 駐佛土耳其大使 다바스氏의 訪問을 請하야 懇談을 하엿는데 그때 土耳其大使와의相議는 順調로 進行되어 情勢는 急展開를 示하엿다고한다 그리고 莫斯科에서도 리트비노프外人民委員이 시즈英大使及 佛代理大使와 會見하야 英佛支府에對한 具體的方法을 協議한模樣인데 이로써蘇聯의 交涉은 最後의 決斷을 기다리게되엇다고 傳하야 十七日 午前에 會見키로된 봉네外相과 駐佛蘇聯大使 스리츠氏의 會見은 極히 重大視된다

지브랄타르要塞當局 防空準備에汲汲

【倫敦十六日發同盟】伊太利軍의 西班牙領 모로코上陸과 同時에 지브랄타르에는 對岸의 緊要한役割을 擔當하고잇는바 十六日 從來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지브랄타르要塞當局은 萬一의空襲에 備하기위하야 各種의 防空壕를 急造中이라한다 또 一方英國政府는 伊太利軍에 對抗하기 爲하야 지브랄타르要塞守備隊로부터 一個大隊를 增派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本國으로부터 步兵一個大隊、第三軍 兵卒數千名이 派遣되엇다

英政界觀測
米國의介入權否認 領土要求限界明示?
루大統領親書와獨伊側回答

【倫敦十六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平和要請에對하야 獨伊가如何한態度를取할가는目下英政界의最大關心事로서各種臆測이 行해지는데 政界消息通은 右루즈벨트大統領의멧세이지에對하야 獨伊의 回答은 亞米利加의 歐羅巴問題 介入을 認定치안코 도리혀 平和維持條件으로서 積極的으로 領土要求件을 提唱할것이라하야 如左히 豫測하고잇다

루즈벨트大統領에 對한 獨伊의回答은 아마 亞米利加의 歐洲問題介入의 權利를 否認하는態度를 取하야 平和維持의 最大條件으로서 獨伊樞軸의 政治的目的을 明確히 主張할것으로 豫想된다 그리고 獨伊의回答은 兩國의 最少限度의 要求로서 如下한것을 宣明할것으로 보이는데 그內容은

一、먼저히의 獨逸舊殖民地歸屬及 발칸에 對한 獨逸利害의 特殊性及 이方面에의 進出을 承認하라는것

一、伊太利의 수에즈運河行政에 參加

一、지부티、아디스·아베바間 鐵道讓渡

一、튜니스在住 伊太利人의 廣範圍에 亘한地位改善及 코르시카島의 非武裝化

等을 包含하야 獨伊 兩國은平和的 手段又는 實力으로 써라도 此等目的을 實現한다는 決意를 强調할것이다 그리고倫敦政界에서는 伊軍의 西班牙及리비아集結及 獨逸艦隊의 西班牙近海移動을 수상히 생각하야獨伊兩國 進出에 關하야 如左한 觀測을내리고잇다

西班牙의 獨伊義勇軍은 依然 撤退치안코 最近에는 西班牙本土로부터 西班牙領모로코方面에 兵力을 集結하고 잇다 伊太利軍은 도데카네스群島及 에디오피아國境에 가까운 리비아에 集結하고 獨逸艦隊는 西班牙近海에 移動할目的인바 此等情報는 伊太利의 當面目標가 地中海의東西入口를 扼하는 지브랄타르、란지에르海及 스에즈運河에 向하야 그所屬關係를 判然케함이 必要且適切하다고 認定하게되어 이번群島를 臺灣에編入하게되엇다 ...

新南群島의 槪要
十八日附官報로 發布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에서는 去三月三十一日附로써 新南群島를臺灣總督管下로 所屬시켯는데 十八日附 官報로써 此旨를正式으로 公布하게되엇다 新南群島의 位置狀況其他 槪要는如左하다

一、位置及狀況

가、新南群島의 所在는 相當히오래前부터 알려진섬으로서 南支那海中 大約北緯七度乃至十二度 東經百十一度 乃至百十七度 卽佛領印度支那와 比律賓群島와의 中間에 處하야 그大部分은 航行危險區域에잇스나 右區域外의 西側에는高潮面上四、五呎乃至 十呎로面積五千坪、一萬坪의 平坦한小沙島가 多數잇는데 主要島嶼名은如左하다

北二子島、南二子島、西青島、三角島、中小島、龜甲島、南洋島、長島、北小島、南小島、飛鳥島、東島島、丸島

나、本島에는 一般으로 比較的 적은雜木、雜草가 나는데 間或椰子其他 大木도잇고 燐鑛과 구아노 燐鑛石을 藏하고 또鰹、飛魚、青海龜、高瀨貝等의 海産이잇다 드물게 支那人漁父가 二、三十噸의장크로 來島하야 各島에서 海瓜、貝、鼈甲類等을 採取한일이 잇섯다하나 畢竟無主島嶼이엇다

二、本邦人과의關係

이가튼 同群島는 從來一般으로 無主地로 認定되엇스나本邦人은 大正六年以來 同群島를踏査한者가 잇서 특히 大正七年以來 라사燐鑛株式會社는 同群島의 구아노燐鑛採取其他事業을 開發하려고二回나 前記島嶼所在의 現地調査를 行하야大正十年부터 長島에 또 大正十一年부터 南二子島에 巨額資本을 投下하야 永久的諸施設을 設置하고 同島開發에 從事하엿스나 때마츰 昭和四年經濟界不況으로因하야 同會社는 施設及採取 구아노를同島에남기고從業員을 一時內地로 引揚하엿던바 其後南洋興業會社는長島에서 再次諸施設을 設置하야 漁業及구아노採掘에 從事하야今日에이르럿다 라사燐鑛株式會社가 大正十一年부터 昭和四年까지 輸送한구아노輸送高는 二萬五千九百餘噸, 金額으로 七十二萬二千餘圓에 達하엿다

三、新南群島를 圍繞한日佛紛爭

本島를 圍繞코 日佛間의 紛爭이 이러난것은 昭和八年以來의일로서 當時前記邦人事業者가 一時群島에不在한틈을 타서 佛政府는 航路의安全을 爲함이라하고 昭和八年突然一隻의軍艦을 同群島에 派遣하야 이를 佛蘭西主權에 歸屬시킬 旨를 宣言하야 日本政府에通告해왓섯다 帝國政府로서는勿論 이가튼 事實을 無視한行爲를 容認할수 업는바로 當時直時 佛大使에 對하야 嚴重히抗議를 提起하고 異議를 有한宣言을 撤回하라고 勸告하엿스나 佛政府가 右勸告에應하지 아니하엿스므로 帝國政府는 佛國의 群島에 對한 先占은 이를 承認하지안는다는 態度를宣言하고 他方잇서서 各種措置를 講究하야 日本側의先占을 確保하야 今日에 이르럿다 紛爭發生後 佛國은 何等의 行動을 取하지아니하엿는데 日支事變이勃發하자 再次同方面에 積極的 活動을開始하야 曩者西沙島의 領有를主張하고 新南群島에 對하여도 軍艦을 派遣하야 邦人의活動狀況을 調査하고 或은商船을 派하야 사람과 材料를上陸시키는 等 同島의 占有를實行하려는 態度를 보엿다 我方은 右佛國側의 策謀에對하야 直時 佛政府에 嚴重抗議하는同時에 帝國軍艦을 派遣하야 邦人의 安全保護及帝國權益의 確保에 萬全의措置를 講究하엿다

四、新南群島에 對한 帝國의行政管轄確定의 必要

帝國과 新南群島와의關係를 생각하건대 帝國의 群島에對한 長年月에及한 事實關係及 國際法의 權限은 儼然하야犯할수업는바이며따라서 群島는 그地位에잇서서 帝國領土에 屬하여야할當然한 行政上의 管轄關係가 確定되지아니한 點으로 말미아마 佛國과의 關係에잇서 種種의紛糾關係가 생기엇슴에 따라서 此際에新南群島의 行政管轄을 確立하야 內外에對하야 ...

拓務人事刷新
全面的으로斷行豫定

【東京電話同盟】小磯新拓相은拓務行政刷新次 먼저 拓務次官을 更迭하엿는데 다시 近近 拓務省及 朝鮮、臺灣、南洋等 各外地全般에 亘하야 全面的人事異動을 斷行하야 拓務機構全般의 陣容整備를 期하기로되엇다 이리하야 異動의 具體案에 關하야 目下 田中新次官이 硏究中인데 大體五月上旬 調査部 設置에 伴한 拓務省 官制改正實施와 同時에 決行될 豫定이다 本省에서는 安井拓務局長, 關島管理局長의 轉出 稻垣新京事務局次長의 本省入이 豫想되는데 이에 따라 官房課長의 異動도 잇슬模樣이다

重慶政府各機關 移轉分散準備完了

【香港十七日發同盟】重慶來報에依하면 日本空軍의 爆擊을 두려워하야 蔣政府各機關은 重慶을 中心으로한七百里 範圍內로 移轉分散하기로 되엇든바 이지음 軍事 外交 財政 三部以外의諸官廳은 모두 移轉準備를 完了하엿다고 傳한다 그리고 右計劃에 依하면 結局 重慶에남어잇슬官廳은 行政院만으로 따러서 重慶市內의 人口도 各地로 分散하고 市內에는 겨우 二萬이 남어잇슬뿐이다

蔣介石、昆明서 카英大使와會談

【香港十七日發同盟】消息通에 依하면 蔣介石은 十日前 重慶으로부터 昆明으로 飛行하엿는바에 依하면 蔣介石은 國民政府要人數名을 帶同하고 重慶으로부터 昆明에 到着하야 目下同地에서 지난十五日 到着한 카英大使와 會見하고 重要協議를 하엿다고 한다

撫河河畔에敵前上陸 ○○으로進擊

【南昌十七日發同盟】十七日午前零時市汊、長灘、中洲等各部隊는 突然南昌南方의 ○江支流撫河河畔에 敵前上陸을 敢行하야 一兵도 損치안코 目下○○을 向하야 進擊中이다

四月攻勢失敗境遇 新反共主和派擡頭乎

【香港十七日發同盟】重慶으로부터의 消息通에 依하면 抗戰主流派의 蔣介石直系 將領間에 不滿이잇서 支那側消息通間에서는 支那軍四月總反攻의 政治的意義를 重大視하야 이總反攻이 失敗되면 反共主和派가 擡頭하야 內紛이 이러날것도 免할수업다고하고잇다 抗戰主流의 蔣介石包圍에 對하야는 王寵惠、居正、張群、張公權、陳樹人等 元老派가 反對하고 또 黨天仇、何應欽、程潛等이 反共主和派로 指目되고잇다 程潛은 西北行營主任으로 故로 政治部長代理를 兼任하고 政治部長은 陳誠이 兼任하고 蔣介石의 絶對信賴下에 事實上 軍政軍令의 大權을 一手에掌握하고잇는데 陳誠의 新國共合作의 運用에 當하야 勢力增大에 對하여는 劉峙、張治中、熊式輝等이 ...

존슨駐支大使 五月五日頃重慶歸任

【華盛頓十五日發同盟】去一月中旬以來歸國中인 존슨駐支米國大使는 最近의 國際關係險惡化에 伴하야 豫定을 당겨서 五月五日頃에 急遽히 重慶에 向해 歸任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한다

루大統領멧세이지 蘇聯도全的支持

【莫斯科十六日發同盟】루즈벨트大統領의 멧세이지는 莫斯科에서 好感으로 迎接되고 各方面에서도 同感의意로 迎接되어잇다 蘇聯最高會議幹部會議長 카리닌氏는 十六日 루즈벨트大統領에게 電報로써 如左히回電하엿다

閣下가 獨伊兩國政府에게 通達한 崇高한要請에 對하야 余는 衷心으로부터의祝意와 深甚한同感의意를 表明함은 余의 欣快히여이는바이다 閣下가 主唱者가된 恒久平和要請이 全世界의 平和를念願하고잇는 蘇聯國民의 胸中에 가장 熱烈한共鳴을 喚起하고잇슴을 余는 閣下에 對하야 確言하려고한다

辭令

四月十七日發令

補大邱覆審法院長 大邱覆審法院長總督府判事 原正鼎

補高等法院長 總督府判事 森田秀治郎

補大邱覆審法院部長

高等法院判事兼總督府判事 渡邊純

大邱地方法院長兼總督府判事 長谷部元雄

釜山地方法院長兼總督府判事 金子秀雄

陞敍高等官二等

補大邱覆審法院判事

大田地方法院長兼總督府判事 一以

清津地方法院長兼總督府判事 松本茂

補釜山地方法院長

補大田地方法院長

釜山地方法院晉州支廳判事兼總督府判事 瓘部廣

京城覆審法院判事

補清津地方法院長

補釜山地方法院晉州支廳判事

平壤地方法院判事兼總督府判事 佐藤誠一 英

補京城覆審法院部長

光州地方法院部長兼總督府判事 上野長清

補平壤地方法院部長

咸興地方法院部長兼總督府判事 菊地壽助

補光州地方法院部長

新義州地方法院部長兼總督府判事 吉川園

補咸興地方法院部長

大田地方法院判事兼總督府判事 渡邊勝衛

補新義州地方法院部長

釜山地方法院判事兼總督府判事 多田義雄

補大田地方法院判事

命陪審官

光州地方法院判事兼總督府判事 瀨戶隣

補釜山地方法院判事

命陪審官

咸興地方法院北靑支廳判事兼總督府判事 李忠榮

府判事 林漸圭

補光州地方法院判事

補咸興地方法院判事

任總督府理事官(七等) 山下金平

(財務局)總督府屬

命財務局勤務

任總督府遞信書記 森憲一

總督府遞信副事務官(七等)

任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七等) 菊地孫兵衛

總督府專賣局屬

(忠北産業技師)

任總督府穀物檢査所技師(六等) 今村新

命總督府穀物檢査所 釜山支所長 德永秀久

(忠北技手)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忠淸北道産業技師

總督府專賣局副事務官 松元熊

休職總督府忠淸北道參事官 楊在河

依願免本官(各通)

(忠北)朝鮮産業技師 今村新

依願免本職

人事·集會

▲水田直昌氏(總督府財務局長)東京出張中 十七日歸任豫定이던바 다시 約五日間歸任을 延期

▲李源甫氏(總督府社會敎育課長)扶餘出張中、十六日午後歸任

▲古川兼秀氏(總督府圖書課長)滿洲出張中、十八日午後二時五十分 京城驛着歸任의 豫定을 變更하야 同日午前八時三十分歸任

▲岡久雄氏(江原道警察部長)十五日稱山市에서外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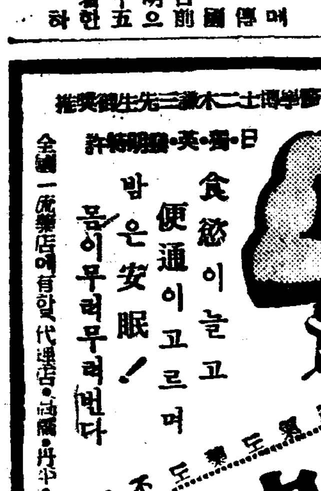
▲洪鍾薰氏(朝鮮會衆聖教會牧師)新任人事次十七日來社

▲塚村敏夫氏(同盟通信社天津支社長)赴任途中 入京人事次來社十八日京城發

市況 (十七日)

◆滿橫生糸◆ 當限 一二三〇〇 先限 一〇五〇〇

廣告



早稲田大學의講義錄

四月·新學年開講·申込者는 連日殺到하고잇다·只今이入學의絕好機이니·諸君도이機會를일치말고 一日을速히入學하라。詳細는內容見本으로說明하니곳申込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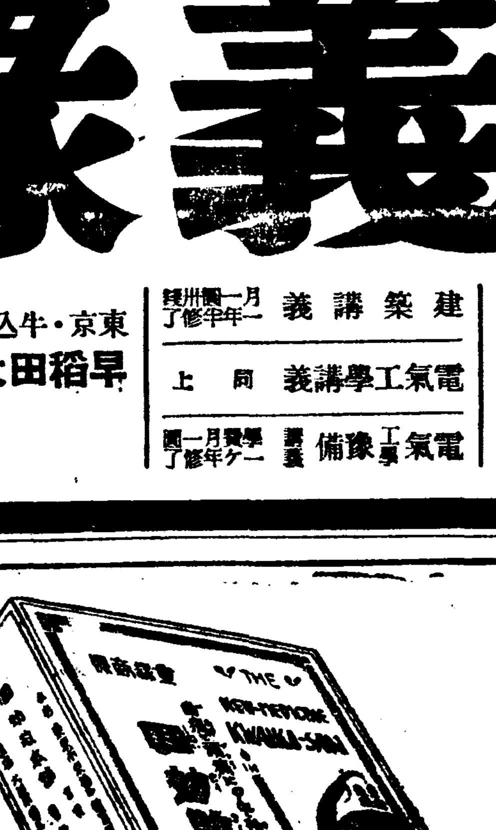
機會をつかめ

小學卒業의讀書力만잇스면누구나入學된다

中學講義 學費前後期各一圓	政治經濟講義 一年半修了	建築講義 一年半修了
商業講義 一年半修了	法律講義 上同	電氣工學講義 上同
高等女學講義 上同	文學講義 上同	電氣工學豫備講義 一年修了

內容見本은반드시志望하는講義錄을써서申込할일。

東京·牛込 早稲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四五



먹으면効能잇는

田効散

歯痛 頭痛에

主効
충치아픈것
이뿌리아픈것
잇몸아픈것
두통
신경통
류ー마치스
마더마다아픈것

家庭의常備藥

田効散은大端히 効能잇다고하야 近來에는 곳藥店에서나 팔립니다마는 이것은 東京帝國大學附屬醫院에서新發明의 特殊藥으로推奬되는 高貴藥을精妙히 配合하여 잇는까닭입니다。 꼭 한번實驗으로서 보십시요。 一生幸福의 基本이될것입니다。

(全國藥店에有함)

本舖 合資會社 森田製藥所 (本店)東京市京橋區 振替東京八九四八番 (支店)大阪市東區

0.20 0.30 0.50 1.00 2.00 5.00

連四日'血戰의戰果' 蹴球朝鮮無比의'矜誇'

二對一! 延長戰고데 平壤軍含淚憤敗

本社主催 第二回 都市對抗蹴球 盛況裡閉幕

축구조선의 패권을 결할평양(平壤)대함흥(咸興)의 도시대항축구의 결승전은 만도팬의 흥분과기대속에 [illegible] 경성운동장에서열리엇다 [illegible] 오늘도 역시 패청인데 북한산 산허리에 약간북아지랑이가 아롱거릴뿐 서풍도 알맛게 산들 산들 패권을결할지을 이날의 날세로서는 더할할 나위가없섯다. 경기는 이우고 오후네시사십사분막을 열엇다 양군은 모두이날을 목표로 평소에 길러온기술과 온힘을기우려서 싸워만장판중으로하여금 열광케하엿다 더구나 평양 함흥의양군은 작년삼도시대항전에서 [illegible] 동점이되어추첨으로 승패를결한숙적이자 호적수이다 [illegible] 싸호지안코 견딜수가잇스랴 파연 개전이되자

접전또접전! 축구조선의 유사이래 보지못하던 백열전으로 [illegible] 이날의 경기는 그유명한패기술에잇서 현하조선축구계의 최고수준을 [illegible] 전후가 시작한지 사십분이 넘도록 한사코 득점을 허하지안터니 전반마감을 조금압두고 함흥군 [illegible] 평양군으로하여금 [illegible] 드러가서 전후개시후 이십을분에 평양군한점을 도루빼아서 동점이되어연장전에 드러갓다 [illegible] 결국득점으로[illegible] 후반에 들어가 삼분이지나서 드디어 함흥군이 이귀중한 한점을어드니 승리의 개가는 함흥군의 진두에 올랏다

最後의榮冠은 咸興軍 陣頭에!

凄壯한 白兵戰

熱援의喊聲、球場을震撼

장안의 벗꼿도 어제 오늘에 개전준비의 아나운써가들리자개활작되고 연일의 조흔날세는 오전의 날카라운 호각소래가 뒤 [illegible] 늘 결승전날도 화창하야 저녁 이어 울리니 평양군저쪽 함흥 때에는 약간 서풍이 선수의띱 군중쪽에 지를 치고 벙이아니 을 씻기에 알마즌정도라 역사 면 사자라고 열파힘을 자랑하 적대경기의 천흥군는 더할나위 는양군이 맛어울리워 찻흥이지 업섯다 정각전부터 관중은 역 착되면서부터 북이날듯 백열화 시 물밀듯하야 스탠드에는 삭 했다 양군의 힘은 백중하여평 람이 겹겹이 [illegible] 군과 [illegible] 내는 비교적 잠잠하야 개전전 의 긴장한비츤 전관중의 얼굴에까지 넘치고잇다 그런가운데 도『괴양 떵거당』조와『함흥의 씀메 앙이다』조의 사투리가여기저기서 현저히 만히 들린다 먼저 함흥군 연일의찻흥에 땀과 몬지에 더럽힌 붉은 옷저고리와 히바지의 유니폼을 입고 장내에 드러서 가볍게 연습을 하고 잇슬때 평양군저각가까와서 유유히 입장하니 장내의 공기는 일층긴장, 욱고이

허 [illegible] 막어내는중 킵퍼박군의 [illegible] 도별을 잡으면 갈작수저안저 적이공격을 못하게 하는전법이 장내의 인끼를끌고 이가리 하야 [illegible] 서로물리고 쪼끼고하는동안 전반전의시간이거이다가서 함흥군 평양군전에 몰겨하야 서로중개고잇서 판중은 가슴이 [illegible] 모다 악을쓰고 잇슬때 뒤발에 마젓든 [illegible] 함흥군 아니기때할까 항흥만세 소래가 『와와』 장내를 흔든다후 반전에 들어가기전 잠간쉬는동안 평양군에는 차감독 김감독

잘싸워주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건대 이번우승만으로써 만족하지말고 아프로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축구계를 위하여서 만흔공헌을 남기기를바랍니다

咸興李主將에 優勝旗授與

方會長의懇曲안訓辭

히유의 백병전끄테 이대열로 홍군이 일열로 정열하니 대회장안 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 씨로부터 대회의성식을 굿게지켜 함흥군이 우승을 하게되자 곳 뒤를이어 우승기수여식이 잇섯다 본브석아레 이날의 패자함 [illegible] 大會 라는의미의 언사가 잇슨후 함흥군주장이유영(李裕榮)군에게 우승기와 우승배의 수여가잇게되자 만장판중은 우뢰가튼박수를 보내엇다 뒤를이어 국가봉창아래 국기강하가잇슨후 수여식을마추니 때는 일곱시십오분 연나흘동안에 걸친 본사주최의 제이회 도시대항축구대회는 이로써 종시 성황속에서 대단원을 지엇다

優勝한咸興軍

(上)과 평양문측에서 함흥군최초득점을 넛는주간…

兩軍監督談

勝負는運數 明年을期必

平壤軍 金光信氏談

(승패는 [illegible]이라고나 할까요 어떠튼 우리로서는 힘껏 싸웟스니 이제새삼스럽게 무에라고 말할것이 업습니다 명년을 기할따름입니다 함흥군은 조흔적수입니다

鄕土의期待에報答햇다

咸興軍 金棟源氏談

최선을 다해서 싸웟습니다 그결과 다행히 이겨서 향리의기대에 보답하게된것이 무엇보다도 기쁨입니다 평양군과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마는 평양군 언제나 호적수라는 느낌을 다시한번느꼇습니다

大會特電

◇…본부석오른편스탠드에 명창이동백(李東伯)씨(李東白翁의 誤記?)

[illegible]

에지지안케 조회하야서 옛날부터 축구구경이면 어디라도 따라다니는 알뜰한 축구팬이어서 지금은 축구팬까지지 요 [illegible] 색사람못지안케 알고잇다 그럼데 그는 구경을하되 어느편이 이겨야겟다는 편벽(偏僻)은 절대로 갓지안는다고한다 웨 그러냐고 무른다 [illegible] 변하여서는 마음에 사기가를 어정할 장부기상이 [illegible] 는 축구의참뜻을 알수업게 된다는것이 명창(名唱)의 축구관이다

◇…어제 준결승전에 평양기생아씨들이 함흥군을 응원하라고 일소대가 몰려와서 응원한결과 평양군이 경성군을 이겻다는 소문을 드른지라 시내 모회회전에잇는 함흥(咸興)아씨 수십여명이 할요휴일을 이용하야 남북스탠드고레와서 진을치고 거떡지가 [illegible]

◇…모신문사 여기자씨 전반전이 [illegible] 지못하고 입구에서 서성거린다 함흥군의 응원을하라니 『몰라』가 [illegible] 수의라산! 그래서 전반전에 함흥이 한점을엇자 홍분한남어지 『쥐』소리처럼 찍—하고 웨첫다 관중가로되 『함흥아씨는 축구선수보다더 굿세다』

大會最後의代用品

편부당(不偏不黨)」이란 기자윤리에 버서나서 그것도 못하고 회장안 기자석엘 가라니 판중아플거리 가기가 어색하고 무서워서 틈어가도못하고 군중한 나머지 군중의아우성소리만 들으면서 가슴을조리고 잇다고하얏다 신문기자는 『세면되장』이라해도 여기저는 좌하에부재(此限不在)

◇…후반전에 드러가서 평양이 한점을어더 일대일의 스코어가되자 회장안은 흥분하는데 나뻡은 소리개한머리가 색하고 무엇을상의 저 공을놀리갓다 [illegible] 한비상시 이것은 축하비행기의대용품? 축구협회간부들은 이것을 본대회의 상서로운징래로 상상하것이라고 수근수근!

◇…대회의 인기는 역시평양군 [illegible]

滿開한 昌慶苑夜櫻

初夜入場二萬二千名

창경원(昌慶苑)의 밤벗꽃노리는십칠일 오후일곱시부터 첫날의문을 열엇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꼿치훨신일적이 괴어서첫날에벌서만개(滿開)되엇고 날세가 따스로워 초야의 입장자는작년의 약이배반인 이만이천명을 돌파하엿다 그러나 해마다장내의 인끼를 끌고잇던연예장(演藝場)도 시국관계로 열지안코 춘소의 정취를 담은듯만 도의사람을 포근한 몽상(夢想)의나라로 잇끌던 명물 춘당지(春塘池)의 입뿌『미네이숀』도 자취를 감추어버리엇스므로 쓸쓸하기 짝이업섯다 장내에 몰려드는사람을 역시 례년과달러서 술취한사람이나노래보르는사람은 하나도업고 끄츨일기는지 꼿도질겨어지는지알수업게 어린동절 도라단일뿐이니 금년의밤 벗꽃노리는 시국의 희오리바람에 여지없이 쓸리채 꽃도죄송일인 이십사일은커녕 여십일경이면 떡어진다라 화(落花)를 보리라한다

(사진은 북아성이튼 창경원야앵)

朝鮮美展 審査員決定

제십팔회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는 오는 유월사일부터 시작되어 삼주일동안 열리는데 총독부에서는 이전람회의심사원을 다음과가티 결정하고 십칠일 이를발표하엿다

第十八回鮮展審査員名簿

○第一部(東洋畫) 東京美術學校講師 矢澤弦月 帝國藝術院會員 中澤弘光

○第二部(西洋畫) 東京美術學校助敎授 伊原宇三郞 元帝展文展審査員

○第三部(彫塑及工藝) 東京美術學校敎授 高村豐周

金永修機再起

今日福岡으로向發

항로비행도중에 지난십월 광도(廣島縣外波)해안에서 연약ㄱ라[illegible] 불시착한 김영수기(金永修機)는 그동안 파손되기 [illegible] 못나서 십일일오전 [illegible] 복강으로 향하야 비행을 계속하기로 되엇다한다

惠化町殺人犯 死刑

시내혜화정(惠化町)[illegible]번지에서 경성(京城)[illegible] 대산(待山)[illegible]를 교살하고 의복을 빼아서가지고 도망하엿던 『혜화정살인사건』의 범인 천천청일(泉川淸一)씨(三)에 대한 강도살인등죄의 언도공판은 십칠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렷는데 불옥(?) 재판장으로부터 검사구형대로 사형을 언도하엿다 재판장의 [illegible] 떨어지자 [illegible] 피고는 정신을 일코 그저 쓰러지고말엇스며 재판관은 판결문낭독을 자못긴장한 공기속에서 엄숙히 계속되엇다

在龍山部隊軍旗祭

(眞谷)의 두부대에서는 십팔일에 군기제를 거행할터인데 용산에 잇는 두부대에서도 이를 전선장병의 고생함을 생각하고 또한 용산에잇는 장병의 의기를 도울기위하야 가른심팔일에 군기제를 거행하기로 되엇다 당일은 장교가족 참판파 각장병이 자작자연하는 재미잇는 여흥으로 망영의군기제를 더욱빗나게 할터인데 금년은 전시하이므로 자국의의미로 대내에서만 하고 일반참관은 시기지안는다

忠州中學 期成會猛活動

委員三氏入京、當局에陳情

충청북도충주(忠州)에는 현재 충주농업(忠州農業)의하교밧게업는데 해마다쏘다저나오는 충주군내의 소학교졸업자수는 근삼만명에 가까워서 작년도의 중학교입학지원자수는 일천삼백오십이명에 달하야 이다수의 지원아동이 면지방에 공부를 나가지안으면안되는터이다 이러한 절실한필요에서 이미오래전부터 충주에 중학교를 신설하자는 여론이자못 노파 작년구월에는 드디어 충주중학교 건설기성회가 조직되어 그동안 이십만원의 기부금까지 모아노핫는데 명년도에는 기어이 중학을신설해달라는 진정을 충독부에하고저 기성회에서 진정서를작성하야 십칠일기성회장지태갑(池泰甲)、지존충대랑(池村重太郞)씨와 충주읍장 송정문보(松井文輔)씨외세사람이 충독부학무국을 방문하고 이를 진정하엿다 이에대하야 학무국장은 될수잇는대로 잘고려해주겟다고 말하엿다고한다

發疹티프스

淑明高女寄宿舍侵入

患者隔離交通遮斷

숙명고등여학교(淑明高女)기숙사에서 발진티부스환자가 나서 방금 대소동을 일으키고잇다…… 십사일 부내수송정(壽松町)숙명고등녀학교기숙사에서 제이호실 유문혜(劉文惠)(一七)라는일학년생이 신열이 몹시나서 알케되어 날이새도록 열은내리지 안흐므로 십오일오후에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해보앗더니 발진티푸스로 진단이 내렷다 학교당국에서는 깜작놀라 한성시내인 제이호실의 교통을끈는 한편으로 제일호실에 기숙생활 대소독을하엿다 문제의제이호실에는 전기유문혜라는 소녀외에 열네명의소녀가 드러잇섯는데 학교당국에서는 방문을굿게닷고 이십명의소녀를 그대로 완전히격리시키는동시에 전기숙생(舍生)십십명에게 외출금지를 명하는등 방역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잇다

決勝戰績

咸興2 平壤1

(前1…0、後0…1、延1…0)

平壤對咸興의 決勝戰은 十七日午後四時四十四分부터 金和鎭(主)李恭鎭、閔丙瑗(線)三氏審判아래 平壤先蹴으로 開始되엇다

【前半】▲十五分까지 게임은兩軍의 憤戰한 품래이로 膠着[illegible]

[illegible]

天候…氣日…晴

平壤	GRLROLRROLL
咸興	KFFHHHWIFIW

淋疾이全快함

눈에띄우게快癒되매놀라

淋疾로淋瀝、膿出、아픈等의苦痛을 免하는터야 [illegible] 가지만히 [illegible] 파아프것도 머저서 速히治癒될 [illegible] 特殊漢方의 名藥으로 [illegible]

東京市本町 [illegible] 昆山院藥部

廣告

▲四月十八日(火曜)陰二月二十九日▲干支乙酉▲日出午前五時五十六分▲日南中午後零時三十三分▲日入午後七時十分▲書間十三時十四分▲月出午前四時五十五分▲月入午後五時五十分▲滿潮(仁川)午前四時二十分午後四時三十五分

◇ 죽우전뺑이가 매물마자 죽엇다고、

◇ 괴살이 아니라 일종의 「자살」?

◇ 중녀여인 배고파 자살、

◇ 자살이 아니라 일종의「괴살」?

◇ 창경원『요사구라』간밤부터 문을 열다、

◇ 구경은 할것이요 구경꺼리가 되지말일.

複合粒子로 미끈하고 곱게발라지는 水白粉

粒子에훌룽한新研究!

(1) 본살에빗나는 듯어여뿌게발라지고

(2) 近代的인明朗한色味!

(3) 時間이지날수록一層더어여뻐짐

이複合粒子의 훌륭한化粧力을꼭한번試驗해주십시요!

明色美顏水

白色 肌色 濃肌色

明色粉白粉

複合粒子로미끈하고곱게발라지는白粉!

白色・黃色 クリーム サンビーム ラツシエル オークル アンバー

明色固煉白粉

白色 肌色

一般賣藥・衛生材料 各社新藥・化粧品

卸 대도매점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中部版

最惡의境遇에는 市民大會로態度決定

延取引市場에仁川府民의決意

【仁川】 기보=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지난십육일오후 여덟시부터 그회회의실에서 의원회를열고 연취인시장 문제에대한보고와 금후의대책을 다시협의한결과 그회로서 최악경우태도를 결정하엿다 주인부민대회를열고 이를키고부에 진정을하고잇스나 인천부세진흥회에서 문제가어대 군산세군대에서 세군미창운동을 경성이전님이래 「연취인지장은 인천이가장 적당하다」는것을 총독부에 누누히진정하여 왓섯거니와 금후는 총독의주의를환기하야 잣지그현세를 보되경우에따라서는 시민대회를열고 궐의를 어더다시 진정을 하더래도 최후까지 목적관철을 위하야 분투노력하기로하엿다 그리고그회에서 전번 총독부에 진정한내용을보면다음과갓다

陳情要旨

一、商業市場을 全廢하고 延市場을 創設하는 主目的은 投機心을 撲滅하고 主要食糧品인米價를保持하기爲함인것은 累言을要치안는것이다

一、延市場認可指定地는 主要大集散地로 되어잇스며 內地에서는十九取引所中에 東京大阪에 限定後는三三은 專門審議委員에依하야 決定될것으로非常히慎重하고잇다

一、目下風說되어잇는 京城에 延市場을 認可하게되면

第一、京城은收容倉庫가업는것과 大集散地에比해 一層消費地에 不過한것

第二、海陸運輸不便

第三、精米大工場及玄米貿易商이 적은것

第四、政府의大方針에違反되는至實、所謂賭博行爲의 便利가되는것

그러나 此點仁川에 許可하면

第一、倉庫收容力이百五十萬石

第二、移出이百七八十萬石

第三、海陸運輸가至便하기때문에集散은 三百五十萬石

第四、大精米工場이林立하야全能力 三百萬石 玄米取扱商人이多數

第五、現在朝取米穀部市場은 實需及受渡高가 全鮮第一位

第六、現取引所는 四十餘年의歷史가잇고 所謂大量貿物取引의實績에依하야 安當한公定市勢를樹立할것

自轉車賊逮捕

【永登浦】 지난십사일오후 부내 신길정(新吉町)을 거리가로 를 무가장의지정자롤하고 동행하는 거두수상한 괴한을 때마침 공동안정주간으로 작치동의 경계하 형사가보고 「스톱」을 명하엿스나 그대로 다시응답을 되집어 경서방면으로 도주하므로 [illegible]

全朝鮮商議所에서

提出한議案山積

廿七日仁川에서討議

【仁川】 제구회 전조선상공회의소 사무타합회는 기보한바와가티 오는이십칠일 어시합임 이틀동안 인천에서 열기로되므로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그준비를 하여오든바 각지의 출석자명부와 심의할의안을 모아오든바 지난십오일로써 모마치엇는바중요한 제출의안을보면 다음과갓다

議案 第一號(元山商議提出)各地에서 中小商工業者의 組合設立狀況及此에伴한一般商民에게 及하는影響에就하야 稟承코저함

第二號(元山商議提出)會員이退職할때는 從前대로 記念品을贈呈하도록할것

第三號(朝鮮商議提出)商工相談所

第四號(朝鮮商議提出) 當所幹旋의商工經營指導員에對한 希望을稟承코저함

第五號(鎭南浦商議提出)商工相談所의 事業其他에就하야 照會코저함

第六號(鎭南浦商議提出)會員의資格에 就하야 照會코저함

第七號(釜山商議提出)時局下에잇서서商工相談所事務打合會와 指導講習會를 開催할것

第八號(釜山商議提出) 이 此가連絡指導機關으로서 每年定期로 朝商主催下에 全朝鮮商工相談所事務打合會와 指導講習會를 開催할것을 要望함

事務의狀況에對하야 稟承코저함

朝鮮鐵道局管內에잇서서 商品見本郵明制度를 內地同樣廢止하도록要望할것

第九號(平壤商議提出)

商工相談所를 開設하는 各所의狀況을稟承코저함

第十號(平壤商議提出)

現下時局에際하야 商業者의實情과 貿易及資材의 實施事項을 에 就하야 考慮又는 實施事項을 稟承코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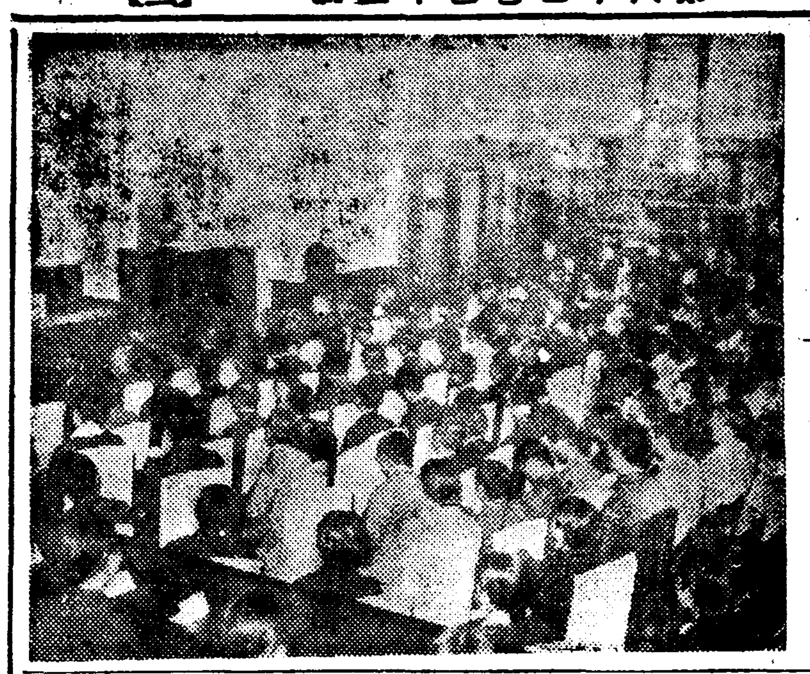
第十一號(大邱商議提出) 商工相談所擴充에關한件

第十二號(本浦商議提出) 共同營業者의 會員資格에 關하야서는 昭和十三年七月二十六日附 稅產局長通牒例示와如한 見解에는 異存업는 營業稅分擔額이 法定額以上에達하고 各各會員資格을有한 共同營業者中其一이 他에單獨營業을하고 그營業稅額도 以上에達해 잇는時에잇서서 同一人을 二個의會員으로하고저 取扱하는나 안는나 各所의取扱方法을 稟承코저함(以下略)

新參한移入敎員

市內에만一百七十名

十七日召集、教育狀決說明



(사진은 새로온교원들)

경성부에서는 금년도경성부내 각소학교 신임교원일백칠십명을 십칠일오후세시에 부청회의실에 소집시키고 내지나 지방으로부터 전임해온교원들에게 경성부내교육상태에 대하야 인직을주고저 교육상황을 보유기타회무 때 게원으로부터 설명하엿다

開城松都金組好績

剩餘金三萬餘圓

年六分의配當決定

【開城】 송도금융조합(松都金融組合) 제이십회 정기총회는 지난십일 오후한시 사회판(社會館)에서 조합장 공진태(孔鎭泰)씨 사회하에 개최되엇다 소회십년도 업적보고 내용을 보면 금년삼월일까지 잉여금이 삼만일천 팔백원을실천으로 그처분안은 다음과갓다

▲特別積立金＝七百十七圓六十二錢

▲法定準備金＝二萬五千百十六圓八十一錢

▲配當金＝三千九百八十八圓七十七錢(拂込出資額에對한年六分)

▲出資拂込充當金＝六百七十二圓十三錢

▲次年度繰越金＝一千九百七十七圓四十錢

▲剩餘金＝三萬一千八百圓六十錢이상과가티잉여금 처분에 대한권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사담 평의원 임기만료에 대하야 다시 개선투표키로 되엇는데 당선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監事＝金英晃 金永熙 尾崎俊南(以上三名)

▲許議員＝方運榮 張熙淳 尹明洙 馬福淵 孫明煥 金基鎬 柳原虎一(以上七名)

江華産組總會서말성

製叺販賣問題로

組合에서取扱토록道에陳情키로

【江華】 제팔기 강화산업조합총회는 지난십일일 정오부터 강화청내소회의실 강당에서 구매이 명 조합원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의안 제일 제이안은 일사전리적으로 통과한다음 이어서 기타안에 들어가 이천오백여명의 생산하는「가마니」를 엇지하야 조합지정을 무시하여가면서 대매인에게 팔필요가 어데잇느냐하고질문이 시작되어갓지 기 여문제로 장내는 소란하엿 우엇스며 현금 대행판개를 경어도 면단체인 조합에서해사치운할 [illegible]것이 한당국의 처사도 불미한바이니 전조합원의 총의를 대표하야 도당국에 진정함이어 떠나는 최후적 태도까지 발론 되엇다 그리하야 한때는 당국의당변도 곤난하엿스나 결국은 전적으로 도당국에 교섭하기로하다는 것으로 하 [illegible] 만약에도 [illegible] 잇다는 것으로 끗을 막엇스나 원래 이문제는 다른도의 실례도 잇는어만큼 도당국의처사가 불편하엿이 더크다고하며 만일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수업는 경우에는 조합원의것 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이천오백여명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하도록 매진하기를 바라다고한다

江華金組長에

洪在龍氏當選

【江華】 강화의 청년실업가홍재룡(洪在龍)씨는 지난십삼일 총회에서 금반 강화금융조합장 개선에잇서서 전조합총대의 총의로써 조합장에당선 되엿는바겨우당선시대개시한 소장조합장임으로 촉망이 크다고한다

瑞島金組總會

【瑞島】 서네영신리면 금응조합(住十里金組)제십팔기 정기총회는 십오일오후세시부터 성동동 공회당에서 연경에서 동조합장 문종근(文宗根)씨사회로 개최 되어 전년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財產目錄貸借對照表)와 사업보고잉여금처분안 영업수당지급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평의원투표(評議員投票)와 사업보고잉 [illegible] 다음 평의원 선거를 행하엿 는데 조합원으로부터 평의원 선출하는 일반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평의원을 선출하는바 도 직접선거를 가진 조합에서 지명선출하는것이 조켓다는 히 망이 만장일치로가결되여 동조 합 장산리사(長山理事)는 직석에서 다음과가티 전형발표하엿 스며 작년도 배당은 확실하엿스나 금변은 얼적으로 보아

一、監事選任(?) 李壽鎭(?)의件

一、元仁東(書) 卞泰(?)(書) 選名(?)

李 寶 秀

東萊金融組合總會

【東萊】 장단동은(東萊)금융조합 제이십기정기총회는 지난십오일오후 [illegible]

組合長 文永熙 監事 李應鎭 申南洪 朴德鎭 許承賢 崔(?)業 淳 孫成烈 金容奎 金顯洙 武蹟鎭 林炳昇

그이상에 [illegible]이나 경지개량 [illegible] 일동 하기로하고 회의장을 [illegible] 가결후[illegible] 곤동어원의피선은 다음과갓다

十八日府會召集

戶別稅賦課等級審議

경성부에서는 소회십사년도호별세과세표의 부과등급(戶別稅賦課等級)을 결정하기위하야 십팔일 오후두 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부회를 열기로되엇다 도동회석상에서일 전영흥부회를 속행할모양이다

경성부에서는 십팔일 오후세시부터 동회의소 회의실에서 다음과가튼 의안으로 교통부회를 개최키로되엇다

一、京仁間과 水仁間의代物運輸에對하야

一、其他의件

安城第二金組總會

【安城】 안성제이금융조합에서는 지난사월십오일오전십일시 부터 동조합사무소에서 조합장장인숙(組合長鄭寅肅)씨사회아래 제구회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반 부의사항을일사천리격으로 맛친후 이미만료된 감사와 평의원을개선하엿는데 당선된인원은아래와갓다

監事 許 鍇 李思漢 李興夏
評議員 兪鎭復 鄭海泳 兪顯雄 鄭容泰 兪成穆 柳漢夏

棉作品評會의

入賞者授賞式

功勞者表彰式도盛大

【金谷】 연천군에서는 현지국에 엄지못할 면작을 장려히 장여하기위하야 면작품평회를 열고 신중히 심사한결과 우수한성적으로 입상하면 부단체의 개인이며 또는 면작에대한 공노자에게 수상식과 표창식을 지난 십일일 오후네시에 연천경찰장 (漣川警察場)광장에서 판민유지 다수참렬하야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수상(授賞)한 면부단체와 공로자(功勞者)는 다음과갓다

一、面對抗競作會 一等漣川面卅圓 副賞 優勝旗一旒、銀盃一個 二等 南面二〇圓 三等 郡南面一〇圓

二、里洞對抗競作會 漣川面玄加里 副賞優勝旗一旒

三、指導圃競作會 一等 積城面赤岩里指導圃十圓 二等 漣川面東幕里武陟指導圃七圓 二等 漣川面車灘里指導圃七圓 一等 南面黃芝里指導圃七圓 三等 嶺南面開高里指導圃五圓 三等 積城面谷邱里指導圃五圓 三等 西南面積(?)里指導圃五圓 三等 嵋山面東梨里指導圃五圓

四、婦人共同作圃競作會 一等郡南面三臣里 婦人共同作圃七圓 二等積城面三和里文學洞婦人共同耕作圃五圓 二等積城面魚派池里台日洞婦人共同耕作圃五圓 三等 嵋山面眠帽里濃洞婦人共同耕作圃三圓 三等官仁面初果里南倉洞婦人共同耕作圃三圓 三等漣川面通峴里新村洞婦人共同耕作圃三圓

五、開築促進競作會 (가)開花의部 一等嵋山面牛井里李柱源七圓 二等嵋山面牛井里李慶華 五圓 三等朔寧面朔寧里崔昌有 三圓 (나)開築의部 一等 旺芹面爾邊里許宇七圓 二等 漣川面東幕里高順文五圓 三等 朔寧面朔寧里林大福三圓

六、棉作功勞者 漣川面書記 李在德 銀盃一組 副賞現金三圓 郡南面書記 白漣室同上 郡南面書記 鄭海容同上 積城面赤岩里區長 韓相萬銀盃一組 副賞現金三圓 郡南面楠溪里 區長高鎭燮同上 朔寧面朔寧里 吉洛區長李東鎭同上 旺澄面北三里區長 愼勒馥 同上

長湍文廟春季釋典

【長湍】 장단읍내에잇는 장단문묘에서는 정례에의하야 춘계석전제를 예정과가티 지난십오일 오전십일시에 서군수를 비롯하야 직원다수참렬하에 엄숙히거행하엿다

地方人事

▲朴聖杰氏(江華合一尋常小學校敎員) 新任人事次本社江華支局來訪

▲崔秉斗氏 同上

▲李中和氏(平澤郡梧城面稅務監督(?)課長) 新任人事次本社安城支局來訪

素砂金融組合總代會

【富川】 소사금융조합(素砂金融組合)에서는 지난십육일 오전십일시 동조합사무소에서 제여십팔기 정시총회를 개최하엿는데 먼저 황거요배와 황군장병 영령에대한 일분간묵도 황국신민서사제창이잇슨후 부의사항은아래와갓다

一、昭和十三年度 第二十八期財產目錄 貸借對照表 事業報告及 剩餘金處分案承認 監事意見書承認의件

仁川商工會의

交通部會開催

【仁川】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매월 예회로각부회를 소집하야의 원의 의사를 연구하게되는바 길전(吉田)회두사임이 매동회의소

危險한슈크림

식품(食品)업오동하시좀 부내상곡천정(長谷川町)에 사는 고목조강(高木初江)(三五)동천혜(千惠)(一〇)그동네 전원선남(前園善二)(?)등 세명은 부근 장기옥(長崎屋)과자점에서 『슈ー크림』을 사먹고 얼마안되어 구토설사를 하엿는데 이사실을 들은 서대문서에서는 실칭일 사실조사를 시작하엿다

開城白川間에

驛傳競走大會에

京城昌信町青年團이優勝

【開城】 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주최인 개성백천간 경주대회(開城白川間驛傳競走大會)는 예정과가티 지난십육일오전열시 경 운각을 기하야 동회관 압서 일제히 출발 모여드는 그들의 검은 변식(辯館前) [illegible] 각 단원들 경쟁하엿는데 경성(京城)에서 참가한 대원(大院)개성(開城)대표는 토성(土城)구간을 목표로 역전가도를 주파하엿는데 모다내로라고 활배는 무사다리는 그들의 용이한 느발을 만나게하야 보세여보엿다 그리고 재살구간에 나누어엇든 각 조원들수이십하명도 제각금 용기하겟다는 용기로써 번복무쌍하게 풍조를 다투며 주파하 여던것이나 최후의영관은 경성 창신정청년단(昌信町青年團)이획득하게되엇다

▲一着 京城昌信町青年團 三時間二十五分二八秒

▲二着 京友俱樂部 三時間四十三分四十五秒

▲三着 大院里青年團 三時間五十八分三秒

▲四着 開城公立商業學校 四時七分四十秒

坡州勤勞報國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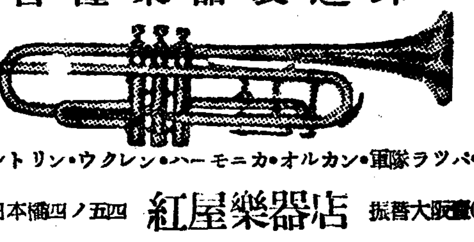
京義複線工事에出動

【金村】 경의선복선공사제이구일의호지 군사회주사 김한성(金漢成)씨의 작업계획아래 조의사 산ー문산(一山一汶山)간의 공사 는 청부자송촌조(中村組)에서에 정대로 지난팔월이래 예의진척 중인데 그간 파주군근로보국단 에서는 이국책적대공사에 출동코저 준비를하고잇던중 지난십 사일 드디어 파주에서 제일차 로 좌기오개면의 보국단원들이 일을마치고 중촌조로부터 대표중천 을걸(中川春吉)씨의 지휘아래각 각작업장소로향하야 출동하엿는 데 당일각면보국단원의 인출자와 인원수는 다음과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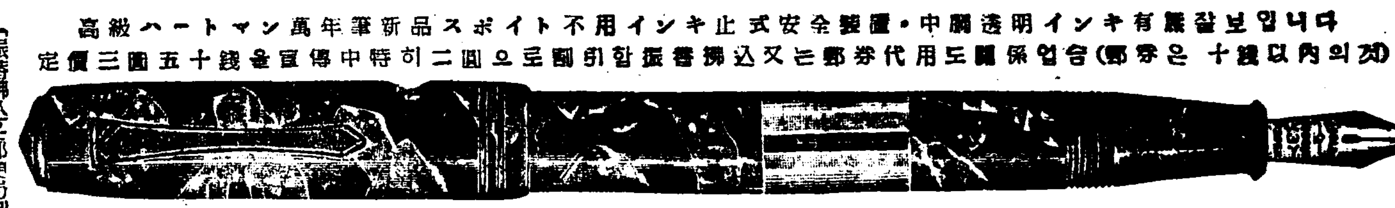
먼저 황거요배 황국신민서사의 제창이잇섯 고 아동면장 송기표(宋基彪)씨 와 [illegible]

臨津面 張德龍	二六名
州內面 鄭炳薰	二〇名
新山面 宋能熙	五二名
積城面 黃漢圭	一五名
交河面 林泰淳	五五名
泉峴面 馬泰洙	一五名

記憶力旺增進劑



今年은前年의凶作으로가不作이되엿기에 고추(고초)가辛子잡하고품질이亦한두보다優良하니 맛을보십시다
一般이아시는바
고추
特許査等品을數量多히가지고잇사오니만한注文하시는분에게都賣를사게합니다
月美人印 カレーカラシコショウ 製造本舖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北區天滿市一の側



(振替拂込又는郵便局에서同 代用도되는 保證(?)券(二十錢以內의것)으로二圓三十五錢을送呈하면定價三圓五十錢品을送付하여드립니다) 注文은先金되時一圓을先送하고 代金引換으로 料金은無料로 絶對로相當한다 前金(?)을付送하면
大阪市南區高津町四番丁七三 ハートマン高級萬年筆本舖 小倉製作所 振替大阪五四八二一番

四月一日부터同末日까지

資生堂化粧品 愛用者여러분께

下記資生堂첸스토ー아에서別記와가튼優待를해드립니다

SHISEIDO GINZA TOKYO

四月一日부터 物品稅가 增徵되엿스나 오래동안 愛顧하심에 報答하고저 四月中에限하야 特奮價대로奉仕하겟나이다

■ 資生堂化粧品一圓以上사시는분에게는無漏粗景品進呈합니다

■ 花椿會員여러분께는資生堂化粧品一圓分사실때마다物資愛護券一枚進呈합니다

■ 花椿會의詳細는 近處의資生堂첸스토ー에서問議하여주십시요 (除滿洲及支部)

京城府 本町 三越 / 同 山岸天佑堂 / 同 平田百貨店 / 同 夏川小間物店 / 同 三中井 / 同 綠谷洋品店 / 同 愛生堂藥局 / 同 齋藤小間物店 / 同 北島藥局 / 同 文化研究所 / 同 黑田信盛堂 / 同 川浪藥局 / 新町 白石小間物店 / 同 宮島屋 / 南大門通二丁目 丁字屋 /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局 / 鐘路通り 和信 / 同 韓靑化粧品店 / 同 德永洋品店 / 同 東亞婦人商會 / 苑南町 大學堂藥局 / 清洞町 天濟堂藥局 / 堅志町 坪倉藥房 / 櫻井町 橋本藥局 / 黃金町 黃金堂藥局 / 錦州通り 中島義生堂 / 竹添町一 西大門藥局 / 同 小山田藥局 / 鐘路五丁目 山崎仁壽堂 / 旭町一丁目 本田商店 / 南大門通り 更生堂藥局 / 吉野町一丁目 岡田永盛堂 / 練兵町公設市場 金丸洋品店 / 漢江通三角地 杉本藥局 / 同 一三 藤田天壽堂 / 同 一六 宮本洋品店 / 同 資生堂藥局 / 龍山元町 大和屋洋品店 / 旭町 齋藤美容室 / 積善町 三井永盛堂 / 仲府町 白松堂藥局 / 黃金町一丁目 中島ホテル賣店 / 鐘路三丁目 白樺堂藥局

中央町 岩井藥局 / 寶化町 南小門藥局 / 仁川府 / 新町 山城屋 / 宮町 小西小間物店 / 同 白石小間物店 / 同 鶴岡藥房 / 本町 清水小間物店 / 同 後藤商店 / 京畿加平 德信商會 / 水原邑 / 本町 谷口百貨店 / 開城府 / 南本町 孫洪俊商店 / 同 金在鉉百貨店 / 滿月町 回春堂藥房 / 西本町 惟一商會 / 忠州 / 南本町 村田洋品店 / 延安 井上百貨店 / 海州 / 同 / 本町 佐々木洋品店 / 同 松村洋品店 / 花園町 英木商會 / 同 藤原藥局 / 江原道 / 鐵原本町 鐵原藥局 / 元山府 / 仲町 夏川分店 / 同 一宮小間物店 / 同 富三屋 / 本町 檜山洋品店 / 同 三中井 / 元山上里 三洋百貨店 / 咸興府 / 本町 / 同 三中井 / 同 夏川分店 / 同 ペーヤ商店 / 同 德永百貨店 / 同 正屋百貨店 / 安岳 太陽商會 / 平壤 坂井百貨店 / 信川 書寶商會 / 白川溫泉 白川溫泉ホテル賣店

全州 金成商會 / 南原 寧越藥房 / 群山 / 裡里 興上商會 / 錦南 古川商店 / 咸南本町 杉田小間物店 / 興南 窒業會社供給所 / 北靑 田代藥局 / 元大浦 / 岡 沐 / 淸津 金光百貨店 / 平康 / 金元商會 / 鏡南 和信支店 / 羅南 / 古市藥局 / 吉州 / 韓國商店 / 成北永安 窒業會社供給所 / 會寧 / 本町 カガシ屋百貨店 / 生駒町 伊勢 / 淸津府 / 新義州 / 本町 細木百貨店 / 城津 夏川分店 / 敦化町 中村洋品店 / 北町 丸見百貨店 / 本町 毛利商店 / 會寧 / 本町 中丸洋品店 / 同 關島貿易 / 西門外 上田小間物店 / 上三峰 / 羅北 / 城津 朝田商店 / 碧潼 韓國日本堂支店 / 同 カガシ屋支店 / 本乙 三星商會 / 阿吾地 石津工業 / 平安北道 三宅商店 / 黃海道 榮根 / 鐵山 第一百貨店 / 信川 永昌商店

(昭和十四年三月現在)

長篇小說

情熱은病인가 【27】

金東仁 作 鄭玄雄 畫

三一九

채옥이와 작별을 하고나서 서구는 약간 어둑신한 골목자기로 들어섯다。

어 정녀의 천녀。

이 정녀의 천녀의 가진바서 구 자신에게 향하여 잇던 정념을 어떤 방식으로 선우박사에게로 돌리만노를 마련이 잇다하면 그것은 세상에 다시 업는 훌륭한 안해가 될것이다。

조일 환자들의 불행한 몸의 사니를 보고 보다가 저녁때 가정의 문을 열을때에 이 정념의 안해가 뛰어나오며 매달려서 『키쓰』 아양의 온갓 버릇을 다 나려 주면 조일 괴로움에 시달리던 박사의 괴로움은 한순간에 사라질것이다。박사에게대하여 가장 적당한안해로서 채옥이를 꼽을수 밧게는 업섯다。

그러나 채옥이의 마음을 서구 자신에게서 떼어 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엇다。

또 한가지、서구로서 마음에 켜기는 일은 자기의 안해에게도 누차를 당부를 바더거니와 누이 연이가 이세상[illegible] 가 되엇는데 적당한 배필로서는 역시 선우박사를、최상으로 꼽을 밧게는 업섯다。

매부로서 선우를 생각해 볼때에 선우의 인격에 대하여서도 불만이 업슬뿐더러 자기의 누어 연이가 누이라하여 특별히 생각되는 배가 아니라 선우에게 대하여서는 혐면한 안해가 될것이다。

연이는 채옥이와 가티 정념의 여자는 아닌 대신 온갓 사물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행동하는 천품을 가지고 잇는지라 『안해』라 하는것이 『내조자(內助者)』라 하는말과 공통되는 말일진대 내조자로서는 연이는 가장 적당할 안해가 될것이엇다。

선우박사를 위하여서는 가장 현명한 안해의 재목이요 선우박사는 도한 연이에게 대하여는 어질고 부드럽고 착한 남편이 될것이엇다。

연이냐。

채옥이냐。

선우박사의 배필로는 두여자가 마찬가지로 서루 다른 의미로서 조흔 안해까움이엇다。

누구를 골라 주랴。

김려경이는 떼어 버리는 편이 선우박사를 위하여 조흔 일이어다。현더라、가령 장차 선우박사가 김려경에게 대한 일시적 흥분이 사라진다 하면 그 가정은 냉낙한 가정이 될것이나 김려경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선우박사와의 새는 떼어버리어야 할것이다。

정룡-한번 골목이를 차면서 비출하엿다。바출하는 바람에 지금껏 하고잇는 순서 업는 생각에서 깨어 낫다。깨어나면서 외인쪽을 나려 보니 진고개로 나려뚤린 골목자기가 잇섯다。서구는 그쪽으로 향하여 발을 돌렷다

밝은 쪽으로 향하여 나려오면서도 저절로 서구의 머리는 지금껏하던 순서업는 생각으로 좋아가지 안흘수가 업섯다。

누이를 주랴。

채옥이를 주랴。

누이를 주기는 쉬운 일어지만 채옥이를 주려면 채옥이의 마음을 자기에게서 떼어서 선우에게 돌릴 필요가 잇다。이 공작이 또한 손쉽게 될일이라고 단언하기 힘든다。

진고개 밝은 거리까지 나려와서도 서구는 역시 막연히 그 순서업는 생각만 계속하고 잇섯다。

밝은 거리에 나려와서 회황한 『일루미네이숀』의 아래 찬연히 장식되어 잇는 진열장속[illegible] 겨우 그생각에서 버서낫다。

서구는 그 거리를 서쪽으로 케에 나오며、멋 가지에 들러서 멧가지의 물건을 사서 여메 끼고 전찻길로 나와서 북쪽으로 가는 전차를 잡아 탓다。

집으로 돌아갈 따게는 날은혜이 업섯다。

이건이상한수수꺼끼

半生을만나못본兄弟、

따은 三百에도열네寸이니까

『감리교총리사』로 게신 양주삼(梁柱三)씨와 전숭전교수(前崇專敎授) 양주동(梁柱東)씨는 형제는 형제이지만은 세상에는 그러케 알려지지 안코잇다。

○

기자는 여기서 이훌륭한 두사람을 내거러 적어도 한문은 서루사랑하라는 감리교의 총리사이요 도한문은 그동생 공유자의 신분으로써 오늘날까지 격장(隔墻)하야 서루왕래치도 안는것을이곳에서 공개하야 필주(筆誅)를 가하려 하는것이다。

○

기자는 형님되시는 양주삼씨를 먼저 서대문밧 남자신학교안의 감리교회 총리원에 찻기로했다 씨는 괴부가 아주조혼 얼굴에 쾌활한웃음을 띄우며

『아니무슨말을 그러케 하십니까』

『가만이 계시요뭇는데에나 대답하여 주십시요』 기자는아주 마음을 단단히 잡엇다。

『......』

『선생님의고향은어디인가요』

『평안도 용강(龍岡)』

『용강에서 나섯겟지만 본판향은』

『황해도 봉산』

(홍지)여기서 기자는 유도심문(誘導訊問)이 차근차근 성공됨을 기뻐하엿다

『그런데 인제는 다른형제분은 다 세상을 떠나고 오직 주동씨만남으신모양인데 서루 아는체 모른체 하고지나실것입시 좀더 화합을할수......』

『업지요』 주삼씨는 안경을한번 바루 잡엇다。

기자는 선생의회개를 그만 접명하고 총리사실을나섯다。

○

이번은 기자는 『양주동씨를』 ×××× 에서 붓잡엇다。

『되엇습니다。떡이 말못음하여 주십시요』

여기서 기자는 이 유쾌하고도 말를한 씨를 좀 혼을 내워야 되겟다고 생각하엿다

『오늘은 역시 참다못하야 공개안할수업습니다。주삼씨는어적 회개하는비치 보이지 안헛습니다。오늘 여기사를쓰는 기자는 선생님두분의 사회적 지위를 위하야 솔크기짝이업습니다。그러나 사회는 기자의 센치멘탈을 허락치 안습니다』 기자는 좀상기되어 숨채기를 하엿다。

梁柱三氏 梁柱東氏 드디여親兄弟아니러라

『아、아、무슨말슴을......』

『할수업습니다』 기자는 떡잡어 떼엿다。

『아아 글세、내말을들으시고』

『글세러니요 선생님도 역시 보아하니 반성하시는 태도가 업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러니、다만 두형제가 사오십이 되도록 서루만나지도안코』

『아아 한번은......』

『도시 한번? 어디서요』

『평양서요』

『그때 무슨말을하엿습니까』

『말은 안햇습니다。서루 멀리서 보기만햇지』

어것보시라。이형제가 이러하다。여기서 기자는도좀 씨의 분울도꾸아 볼까하엿다。

『좀 아주 훌륭한형제여의다』

『사회의사표』(師表)가 저우이나 되겟습니다。선생형님의 말씀을들어보시라오。이제야 글럿지요 화합 안합니다! 이럿십니다』

『혹 그러라면 나도 면만치 안흘걸』

기자는 여기서 노청스럽게 줄올한번 노주엇다。

『선생님 그러시지말고 그연유나 좀들려주시요。그러케꺼정 불공대천의 사이가되는 이유라도 공개하여야 좀 비난이라도 덜하지안켓습니까』

『호-ㅁ』 씨는 감개무량하게 얼굴을 처들엇다』

『주의가 다릅니다』

『아-그러세요』 기자는 뎡부소봉(驚訝)며 노화(勞火)

형제가 여기도 잇섯구나하고 님거 지엇다。『주삼씨는 장리교고 선생은 장로교니까』

『아니지요。좀더、김습니다』

기자는 놀래기 마지안햇다。

『그러면』

『후、싸움까지 하엿습니다』

『울칙、그래 어디선』

『주삼씨네는그동에황해도에셔 못살고평안도로다려낫습니다』

『그래 형제기』

『왜 못합니까』 주동씨는 엄어섯다。

기자도 일어섯다 아주(단단히 근거를잡어야겟다)

『그래 멋해전에?』

『호-ㅁ』 하고 다시한번 주축하엿다가 역씨형제사어가그러치 안흔지 감개무량한듯

『...단종대왕때』

『앗!』기자는 여기서 벌오줌은 실수를 한것을깨다럿다 그러므로 다려나듯이 황겁스럽게 모자를 집어 들고 나서면서 나즉이불럿다

『그럼 몃촌간이요』

『삽배열네촌』 딴은 그럴일!

그러나 두분은 그형 그아우리할만하게 우리네 문화에몸을바친분들임에랴!

그런줄만 아랏드니。

라디오프로

十八日(火)

▲午前七時二〇分 宮城遙拜 라디오體操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東)和洋合奏 東洋管絃樂團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生活에標準을세웁시다』 培花高女 李英乙順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齊唱과獨唱 봄노래열가지 金尾童謠會 伴奏金仁洙

▲同六時二五分 講演(京城)『音樂과國民性』 李冕相

▲同六時三〇分 講演(平壤)『觀光事業에對하야』 平壤府社會係主任 金弘植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룩크파이버이야기』 同德高等女學校 朴瑋烈

▲同八時 京畿歌謠 一、小春香歌 二、刑杖歌 三、平壤歌 尹一枝蓮 朴玉姬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 李白姬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江上風月 二、唱劇調 春香歌中離別歌 金素姬 鼓手丁元燮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二四) 金鳳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英語講座(四)

▲同九時四五分 (大)幼兒時間

▲同一一時 (東)小國民時間 『第二回』

▲午後零時五分 (東)和洋合奏

▲同一時一五分 (城)家庭時間(朝鮮語・釜山・咸興) 生活標準을세웁시다 孫貞順

▲同二時 (大)小學生時間『第二回』

▲同六時二〇分 (東)어린이新聞

▲同六時三五分 (城)講演

▲同六時五五分 (東)귀-렌트・토픽스

▲同七時三〇分 (東)國民歌謠

▲同八時 (東)童話劇

▲同八時四〇分 (東)靑年時間

▲同九時 (東)講談

任祥姬女史 音樂會開催

十八日밤府民館에서

지난해에 우리 악단(樂壇)에 『데뷔』하야 명성을 노핀 『소프라노』 임상희(任祥姬)여사음악회는 십팔일밤일곱시반부터 부민관(府民館)에서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주최로 열리리라한다

凸問凹答

【問】 정거장이 읍에서 웨그리 떠러저잇누

前回【問】...평양축구단이 『헤딩』을 할때는 어떤군호로 응원을햇스면?

同【答】 쌍!

神經病은自殺의捷經

天國行志願者身元調査

여기서도 男子가 女子보다勇敢하다

自殺生理學

봄엔

자살하는 사람이 만흐니 마음이 회동회동한봄철은 위선 주의할것이다。

자살은 정신에 죽어상(異狀)이 잇는사람이 만히한다는것은 이미아는 사실이다。정신병(精神病)이나 신경병(神經病)가운데도 제일자살하기 쉬운것은 『멜랑코리』 즉 우울증(憂鬱症)이다。

어려한 병을가지면 공연히 감정이 침울해지고 심기망상(心氣妄想)을 가지게되어서 자기자신을 탄식하고 절망에빠저 헤매다가 못내는 죽엄을택하는것이다。

이병

어 아직 경증일때는 신경쇠약으로 오진되기 쉬운데 이때에 제일 자살을 만히한다。

보통에 가까운 우울병성을가진 체질의소유자、선천적으로신경질(神經質)인 사람들이 다어 종류에 속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수효로 보면

남자

가 훨신더 자살을 만히하고고 연령은 대개어심으로 삼십까지라고한다。

자살한 사람의신체를보면 남자는 대개병에 여든사람은 병적변화를 일으키고잇다。즉생전에 몸에무슨 병을지니고잇던사람이만흔데 그중에 중추신경계통 만성『알콜』중독환자도만타。

여성

자살자를보면배 사람에야호한사람은 병을가저 섯기때문에 변해지것을본다。그가운데 제일만흔것은 중추신경계통의 변화로서 월경、임신、생식기변이 그것이다。남성에 비해서 섬세한가 현저한것은 주의할 현상이다。그리고 월경시에 자살하는인은 어십오 프로-센트인데 그 대부분은 신경계통에 어상이잇는사람들이다。그다음엔 예술가에게 자살이 도만하다

副業熱盛行

映林스타-間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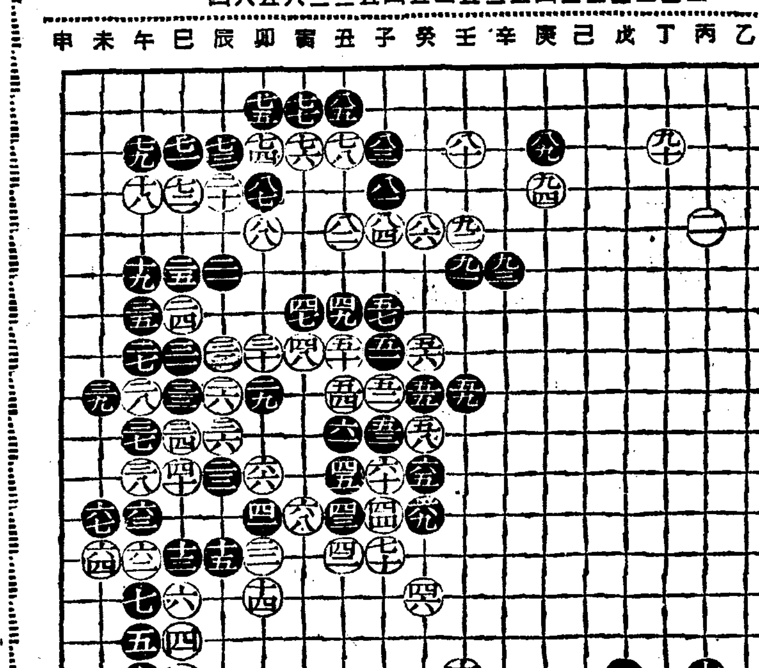
『헐리웃 스타-』 사이에는 최근 농장과 목장을사서 『오렌지』 혹은 『레몬』 등을 만드는것이 유행인데 『크라-크・게이블』도 요지음사드린 『오렌지』 농장이 대단히 성공하야 기뻐하면서 드디어는 시장에 자기일홈을 서명한 『오렌지』를 내이고잇는데 대단한 인끼로팔리고잇다。또 『로버-트테일러』 『스펜서-트레이시』 『로버-트영』등도 농장경영에 나섯더이라고 기염을 토하고잇다。

陽春素人對碁戰 =【5】=

白 申勉植

黑(先) 盧永根

手	位置
●七五	卯의二
○七六	寅의三
●七七	寅의二
○七八	丑의三
●七九	午의三
○八〇	壬의三
●八一	子의四
○八二	丑의五
●八三	子의二
○八四	子의五
●八五	丑의二
○八六	癸의五
●八七	卯의四
○八八	卯의五
●八九	庚의三
○九〇	丁의三
●九一	壬의六
○九二	壬의五
●九三	辛의六
○九四	庚의四



飜覆風雲이無常 黑卯四枯禪焚香

權秉都

時에日 維鶴維鷄에 維鳩居之라하여시니 果然左上隅、白陣中에 黑軍이突入하야 毅然奮擲한다 然이나 未來風雨를엇지 推斷할가? 黑七五는 卯의二로 제치니 白七六은 직짓그대로、伸出하야 黑軍을敗擊(第二線)으로 誘引한다 黑七七과 白七八은 到今形便으로어찌할수업는 手順인저 一이戰跡을 巡禮한다면 黑이左隅에 苟活하엿스나 東中部、白勢力이 安定하야 將次風雲變化가이러날때는 敗揚이至困難할줄로思한다ー黑七九는 完生을 꾀하는바이니 奮乾을不虞하고 白八〇의二間飛는 아마 過剰이엇、黑八一은 敵陣의 寶察를 侵하야 참 妙할진저ー白八二는 要須그리며 丑의五로 對應하니 黑八三은 間路로衝出한다 白八四는 念勝務할은外라 失手로認한다 차라리丑의一로先着하엿스면 어떨가? 白友軍으로 救去할수도잇고 左隅黑勢를 侵略할수도잇엇고 또는中部黑二兵을 孤立하여 浮石으로化할것이다 黑八五는 집도自然護고 白勢도 縮小시키니 참 조흔手이며 白八六은 將軍動바 아니다 黑八七은 有何意味오 망창한수다 말일卯의五로 冠帽하엿스면 兩者中 一은 좀 得實할것을......前功은 다 水泡로 돌아가고 잡모술 消費하야 마치 枯禪처럼 焚香을 讃頌하는듯? 白八八은 毛遇順風으로 날려가다? 黑八九로 白九四는 東之西開하고 일로보와 兩雄의 失手가 頻頻하야 飜覆風雲이 無常하다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MARUZEN

淸楚端麗한銘仙地

婦人用晴雨傘

色調・감은嶄新明朗。핸들에日本調의柄。黑柿材로하엿고、晴天에도조흐며、雨天에도또한防水完璧。¥12・50以上 送・45

手編婦人스카-후

毛의感觸을말하는純絹製品。¥12・50以上 送・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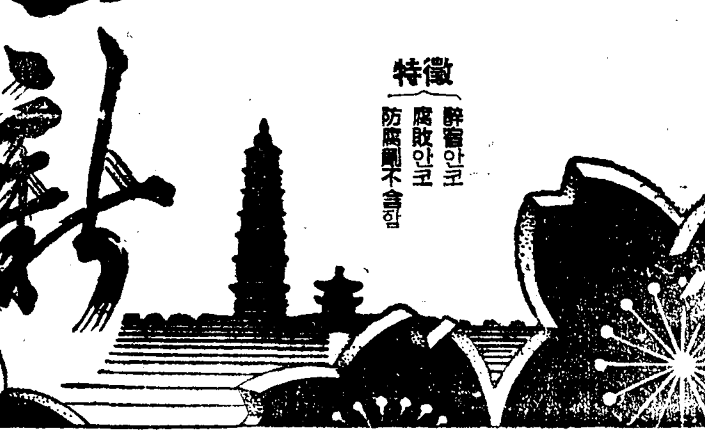
京城・本町二丁目

丸善

電話本局(2) {代表 六一四一番 長 六一四六番}

곳피는興亞의봄을讚美하며

理研淸酒



特徵 醉醒안코 腐敗안코 防腐劑不含함

馬山 昭和酒類株式會社

胃腸病特効藥

戰功丸

빗나는戰功!! 빗나는藥効!!

本劑는强力한殺菌作用을가진 胃腸藥입니다

皇軍慰問袋에도 銃後保健藥으로서 各方面에多大한 賞讚을바드고잇습니다

鮮滿總販賣所 京城府本町四丁目 木村藥房

代理店 益光堂藥房

本舖 大阪 朝鮮實業株式會 日本製藥化學研究所

定價 五十錢・一圓・二圓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六

電話一一四三番

未婚女性이라도 放念禁物!

月經不順・過多・過少・月經前後의痛症・帶下는婦人科에病이잇는證據 秘密히使用되는

一步進步한婦人科藥

玉乃惠

定價 .80 1.10 1.80 3.50 全國有名藥店에有함

皮膚病 チヤージ

근지러운 皮膚病 무좀、버짐、옴、습진、여드름、백로지、頭及手足이거칠며 南京虫의害에

冊錢、五十錢、一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宿醉 ノーシン

두통이나 골치아플때에

セーフティ

高級萬年筆

【實物宣傳】 (世界的發明品)

新案登錄第一〇七九六二

【諸官省・諸學校御用達】

▼宣傳奉仕(製造元直接)

本品은如何한高級金펜萬年筆보다優秀하다!!

A 一重・二重輪同値 高級新型金クリップ付金輪入品 イ、(三分二厘)(男子用)ビスコ變色軸 定價二圓五十錢也 空前の大特價八十五錢也 ロ、(三厘)(女子用)ビスコ變色軸 定價三圓四十錢也 空前の大特價一圓二十錢也 定價三圓也 空前の大特價九十五錢也

B 一重・二重輪同値 高級新型金クリップ付金輪入 ハ、(三分五厘) 二、(三分七厘) 特別仕上黑軸 定價三圓六十錢也 空前の大特價一圓三十錢也 定價四圓也 空前の大特價一圓五十五錢也

C 一重・二重輪同値 高級新型金クリップ付金輪入 ホ、(四分二厘) ヘ、(四分六厘) 特別仕上黑軸 定價五圓也 空前の大特價一圓七十錢也 定價六圓也 空前の大特價二圓十錢也

東洋屈指의近代的大工場券商會化學萬年筆工場作成セーフティ(五個年保證書付) 右揭高級萬年筆三種各八千本限하야 朝鮮日報讀者에게 宣傳키爲하야 定價以下의 品目으로 投賣함 萬一途中破損 又는 不備이게시면 몃번이나返金해드립니다

昭和十四年六月一日을 期하야 全滿鮮地方文具店 一齊히 定價販賣함

▲世界的有名スイツル製時計大特賣中特賣規定贈呈

東京市淺草區花川戶一丁目十七番地

スイツル貿易商會

瑞西製時計 セーフティ宣傳部

御問屋 電話(代表)淺草(84)四七七二五番 振替口座東京三〇二二一番

專屬萬年筆工場 下谷區龍泉寺町

兒童文學集發賣中

定價一圓二十錢 送料二十二錢

育兒는 經驗과學理에서!

幾百萬의健康兒를길러온 優良實績・宏壯한 榮養特質ー 뜻잇는小兒科專門醫家는 모두 森永드라이밀크를 推奬하십니다

森永煉乳株式會社

發育促進에・世界最良粉乳

森永ドライミルク

第一劇場

四月十五日부터十八日까지 每日晝夜二回 大衆料金

『遺書』改題 『沐浴』 密林の覇者 새동무

東洋劇場

桃花劇場

富豪一代 維新の歌